

자료 2025-02-07 / SINCE 1990~

# -주간- 광주 경영계



광주경영자총협회  
GWANGJU ENTERPRISES FEDERATION

# 알아야 사장이다! 1탕

소상공인이 있어 광주가 있다!

## 2025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설명회

행사일시 2. 11.(화), 14:00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사업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 행사 개요

- ▶ 행사 일시 2025년 2월 11일 (화) 14시
- ▶ 행사 장소 김대중컨벤션센터 전시동 304호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누리로 30)
- ▶ 행사 대상 지원사업이 궁금한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 누구나
- ▶ 주요 내용 기관별 2025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제도 안내
- ▶ 신청 방법 현장 접수 또는 아래 QR코드 신청

### 행사 내용

주요내용	기관명
소상공인 지원사업 안내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사업안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재무건전성 안정을 위한 미수 채권 회수 위임 소개	IBK신용정보
착한소비, 착한금융, 착한일자리 슬로건 안내	광주광역시청 경제정책과



### 사전 신청 QR

사전신청시 소정의 기념품 증정  
www.gjep.or.kr  
www.gjbizinfo.go.kr

## 광주은행

### ◆ 38개국 언어 AI 통번역서비스 실시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외국인뿐만 아니라 노인이나 시각, 청각 장애인 고객도 태블릿PC를 이용해 음성이나 문자 변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고병일 은행장은 “외국인 고객의 금융 편의성 향상을 위해 실시간 통번역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며 “외국인 고객에게 더 나은 금융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 소상공인 금융지원 등 '골목상권 살리기' 나섰다



특별출연했다. 이 재원으로 광주신용보증재단은 419억원의 특별보증대출을 공급하며, 광주광역시 1년간 3~4%의 이차보전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병일 은행장은 “이번 특별보증이 경기침체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에 따뜻한 온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광주은행은 광주광역시 1금고로서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광주·전남 대표은행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많은 외국인 고객을 위해 전 영업점에서 실시간 통번역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광주은행은 이를 위해 최근 AI(인공지능) 언어 데이터 전문 기업과 협업을 마쳤으며 영어, 일본어, 중국어, 아랍어 등 모두 38개국 언어의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광주상공회의소에서 강기정 광주시장, 김귀남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소상공인 특별보증 대출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광주은행은 고금리 및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주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20억원을



## 광주신세계

### ◆ 대학생 현장실습 교육 ‘호응’



광주신세계(대표이사 이동훈)가 매년 진행하는 ‘대학생 현장실습 교육’ 프로그램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이번 시즌에는 일주일간 설 명절 행사 업무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토록 해 단순한 교육을 넘어 실제 명절 기간 바쁜 실제 현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학생들은 마케팅

일환으로 최근 MZ들이 많이 찾는 광주신세계의 ‘플레이 스팟’을 주제로 홍보영상을 직접 촬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했다.

이동훈 대표이사는 “직접 현장을 경험하면서 막연하고 생소할 수 있는 유통업을 가까이에서 배울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지역 대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미래 취업에 도움이 되도록 앞으로도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금호타이어

### ◆ ‘스타드 툴루쟁’후원 계약 체결



금호타이어(대표이사 정일택)가 유럽 프랑스 럭비 구단인 ‘스타드 툴루쟁 (Stade Toulousain)’ 팀과 후원 계약을 체결하고 공식 스폰서로 나선다고 밝혔다.

금호타이어는 이번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24/25년 하반기 시즌부터 27/28년까지 4시즌동안 ‘스타드 툴루쟁(Stade Toulousain)’을 공식 후원한다. 스타드 툴루쟁은 프랑스 럭비 리그(Top14) 23/24시즌 우승을 포함하여 총 22회 우승컵을 들어올렸으며 유러피언 럭비 챔피언 컵에서도 우승 6회로 최다 우승을 기록하며 유럽의 최강팀으로 자리매김 하였다.

정일택 대표이사는 “유럽의 인기 스포츠로 꼽히는 프랑스 럭비팀 명문구단 스타드 툴루쟁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프랑스를 비롯한 글로벌 시장에서 금호타이어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브랜드 프리미엄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삼성전자

### ◆ '가격동결' 갤럭시S25 사전예약, 전작 기록 갈아치울까



삼성전자의 새로운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S25 시리즈의 사전예약이 마감됐다. 전작인 갤럭시S24 시리즈의 경우 첫 인공지능(AI) 스마트폰으로 역대 갤럭시 S 시리즈 중 가장 많은 사전판매량을 기록한 가운데 갤럭시S25 시리즈도 이같은 흥행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진행된 갤럭시S25 시리즈 사전예약 마감했는데, 총

예약 건수가 전작 수준과 엇비슷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장 판매점에선 "전작인 갤럭시S24 사전예약 당시보다 반응이 뜨겁다"는 의견들이 다수 나왔다.

이번 갤럭시S25 시리즈는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 등 사양 개선과 새로운 AI 기능이 탑재됐음에도 전작과 동일한 가격으로 책정된 점에서 소비자들에게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 한전MCS

### ◆ 지역상생 위한 사랑의 김장 나누기



한전MCS(사장 정성진)는 나주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장기 후원 협약의 일환으로 대한사회복지회 이화영아원과 사회복지법인 금성원에 김장김치를 전달(사진)했다.

이날 한전MCS는 이화영아원에 김장김치 50통(200만 원 상당), 금성원에 60통(240만 원 상당), 나주시 취약계층에 120통(480만 원 상당)을 각각 전달하며 온정을 전했다.

한전MCS 사회봉사단은 나주시 희망복지지원팀과 협력해 이화영아원과 금성원, 나주 지역 취약계층 120가구를 대상으로 김장김치를 가정마다 직접 배달했다. 지난해에 이어 한전MCS 본사 직원 40여 명이 참여해 정성과 온정을 담은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다.

정성진 사장은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나눔과 상생의 가치 실현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ESG 경영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공헌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 한전KDN

### ◆ 설날맞이 사회공헌활동으로 지역경제활성화 도모



한전KDN(사장 박상형)은 전남지역 취약계층 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지역농산물 및 지역사랑상품권을 기부했다.

이번 행사는 설날을 맞이해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나눔기부 활동과 지역경제 회복을 연계한 활동으로 나주시에서 추천받은 5개 사회복지시설(행복의 집, 나주실버케어센터, 나주플래티늄 요양원, 나주 백민원, 새벽동산의 집)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박상형 사장은 “설 명절을 맞아 지역 이웃에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면서 지속적인 쌀 소비연계로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어 큰 보람을 느낀다”면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공감 경영을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한전KPS

### ◆ 글로벌 원전 정비 시장 확대 박차



한전KPS(사장 김홍연)가 을사년 새해를 맞아 글로벌 원전 정비 시장 확대에 전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팀 코리아’가 루마니아 원전 설비개선 공사 사업 참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한전KPS는 이에 더해 브라질과 남아공, 스페인 등 신규 해외원전 시장으로의 진출도 본격화하고 있다.

한전KPS는 지난해 한국수력원자력과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원전 1호기 설비개선 공사 사업수행을 위한 계약 체결 합의서에 서명을 완료했다.

김홍연 사장은 “오랜 경험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적극 활용해 전 세계 원전 및 화력발전정비 시장을 선도하는 미래지향적 성장을 견인하겠다”며 “올해에도 지속적인 기술 혁신과 전략적 경영 기조를 바탕으로 100년 기업의 초석을 다져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호반그룹

### ◆ 임직원 기부금 10억원 돌파



호반그룹은 사내 봉사단 '호반사랑나눔이'를 통해 들어온 임직원 기부금이 10억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는 호반건설, 대한전선, 호반호텔앤리조트 등 그룹 임직원들이 2009년부터 15년간 매달 자율적으로 월급의 일부를 기부해 모인 돈이다. 같은 기간 기부와 별도로 임직원 봉사활동도 160회 이상 진행됐다. 기부금은 취약계층 후

원이나 연탄, 김장 김치 지원 등에 사용됐다.

### 알림

본란은 본회 회원사 소식을 게재하고 있사오니 대표 동정, 행사, 제품 소개 등 기타 홍보하실 내용을 보내주시면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 담당 : 최수용 팀장

● e-mail : gjef3425@naver.com



## <제1673회 금요조찬 포럼>

### 2025년 광주광역시 시정 방향

(강기정 시장)

1673회 금요조찬포럼은 강기정 광주광역시 시장을 초청하여 「2025년 광주광역시 시정 방향」을 주제로 광주경제 데모노믹스(민주주의+경제), 착한소비, 착한금융, 착한일자리 대하여 강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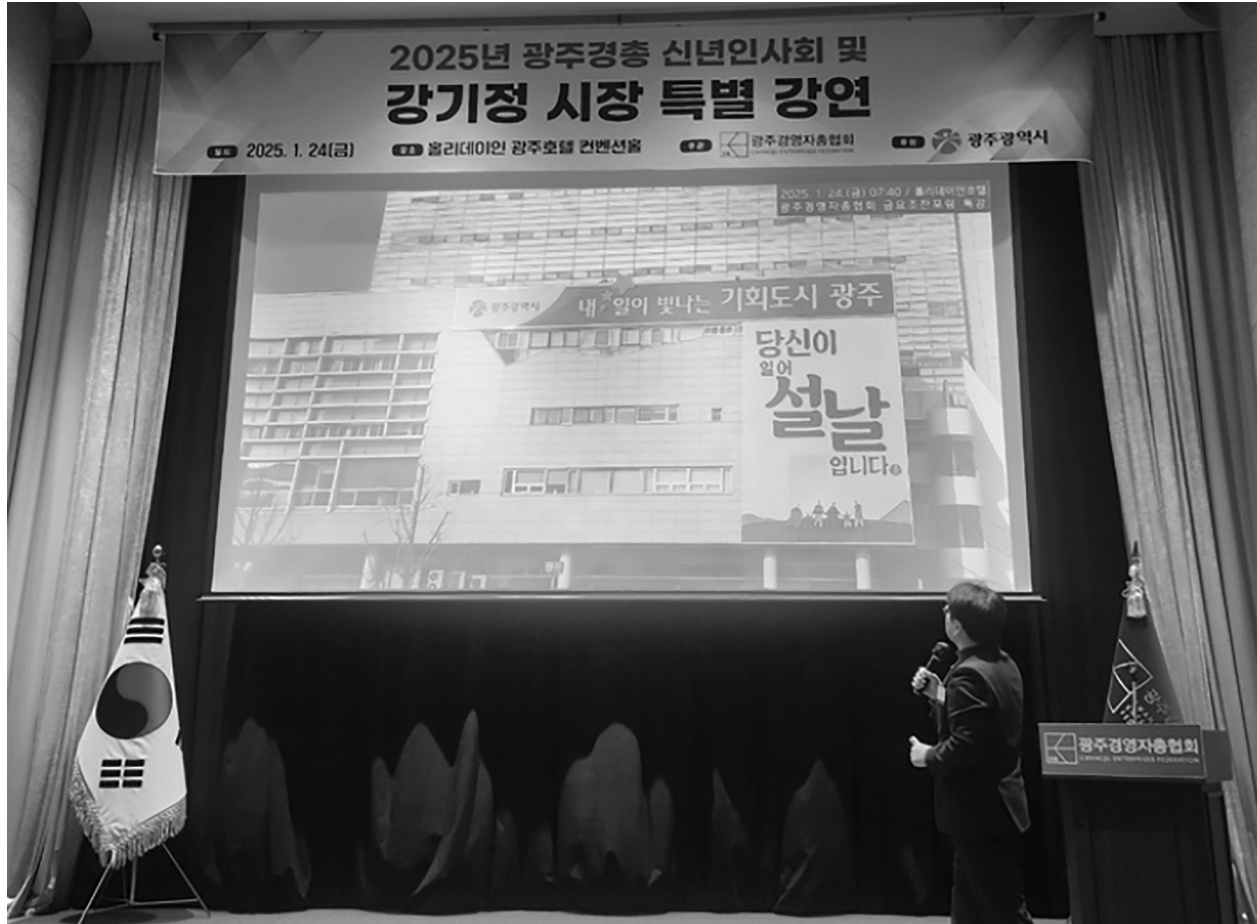
“광주경제 금요조찬포럼은 지난 35년간 국내외 주요 이슈가 논의되고 미래 신기술을 공유하는 등 광주 기업인에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광주경제에 큰 힘이 되고 있다” 며 인사말과 신년 특별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2025년 광주경제 키워드로 ①데모노믹스(민주주의+경제) ②착한소비 ③착한금융 ④착한 일자리 네가지를 제시하고 그중 착한 일자리 창출은 AI, 미래차 등 산업 분야 3846명, 창업 지원 200명, 문화콘텐츠산업 고용 130명, 복합쇼핑몰 건설 고용 600명 등을 통해 총4776명의 일자리 창출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광주광역시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9대 대표산업 (반도체, 데이터, 모빌리티, 인공지능, 문화콘텐츠, 에너지, 메디헬스케어, 광융합, 스마트뿌리)를 소개하며 24년 대비 1412억 증액한 국비를 AI산단, 미래차국가산단 등에 추가 반영하고 지역 먹거리인 신산업 육성의지를 보였습니다.

특히 최근 화두가 되는 AI산업을 2018년부터 육성해 왔으며, 다른 지자체보다 최소 3년 이상 앞서있다는 장점을 살려 광주 성장의 핵심 산업으로 키우겠다고 포부를 이야기했습니다.

끝으로 ”대표산업의 활성화와 고도화를 위해서는 인재가 중요하다“ 또한 ” AI영재고, AI선도학교와 더불어 대학과 기업이 연계하는 반도체 계약학과 등을 통해 뿌리부터 튼튼한 인재 사다리를 만들겠다“ 고 강조하며 강연을 마무리했습니다.



## 1. 경제 동향

### ◆ 경총, 「2025년 설 휴무 실태조사」 결과 발표 (1.19)

- 경총이 전국 5인 이상 602개사(응답기업 기준)를 대상으로 「2025년 설 휴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 휴무 실시 기업 중 45.0%가 '6일' 간 휴무하는 것으로 나타남.
- ① (설 휴무 일수) 올해 설 연휴는 토요일(1.25), 일요일(1.26), 임시공휴일(1.27)과 설 공휴일 3일(1.28~30)이 이어지면서, 설 휴무 실시 기업 중 45.0%가 '6일' 간 휴무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 다음으로는 '5일 이하' 25.0%, '9일 이상' 22.1% 등으로 조사 응답 기업의 97.5%가 올해 설 연휴에 휴무를 실시한다고 답변 '9일 휴무' 21.5% + '10일 이상 휴무' 0.7%
- (기업 규모별) 300인 이상 기업은 '7일 이상 휴무' 라는 응답(42.2%)이 300인 미만 기업(28.5%)보다 높았음. '5일 이하 휴무' 라는 응답은 300인 미만 기업(26.2%)이 300인 이상 기업(15.6%)보다 높게 나타남.
  - ※ '9일 이상 휴무' 응답은 300인 이상 기업(31.3%)이 300인 미만 기업(21.0%)보다 높게 나타남.
- ② (설 상여금 지급 여부) 올해 설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응답한 기업의 비중은 62.4%로 지난해(64.5%)에 비해 2.1%p 감소. 300인 미만 기업(60.3%)보다 300인 이상 기업(78.8%)에서 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업의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남.
- ③ (설 상여금 지급 방식) 설 상여금 지급 방식은 '정기상여금으로만 지급' (65.7%)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별도상여금만 지급' (24.4%), '정기상여금 및 별도상여금 동시 지급' (9.8%) 순으로 조사. 별도상여금: 단체협약·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 아닌 사업주 재량에 따라 별도로 지급되는 상여금
- (별도 설 상여금 지급수준) 올해 별도 설 상여금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급' 이라는 응답이 81.7%로 높게 나타남. 그 외 '전년보다 많이 지급' 응답은 14.2%, '전년보다 적게 지급' 응답은 4.2%로 집계.
- ④ (설 경기상황 평가) 올해 설 경기상황(1월 기준)이 '전년보다 악화되었다' 라고 응답한 기업 비중은 60.5%로, 이는 최근 5년(2021~2025년) 중 가장 높았음. 올해 설 경기가 '전년보다 개선되었다' 는 응답은 4.4%로 최근 5년(2021~2025년) 중 가장 낮게 나타남. 올해 설 경기가 '전년과 비슷한 수준' 이라는 응답은 35.2%로 나타남. 올해 설 경기가 '전년보다 악화되었다' 고 응답한 기업 비중 추이: 70.1('20)→53.9('21)→36.3('22)→53.8('23)→50.0('24)→60.5('25) 올해 설 경기가 '전년보다 개선되었다' 고 응답한 기업 비중 추이(%), 경총 조사): 3.0('20)→6.5('21)→9.8('22)→4.5('23)→5.8('24)→4.4('25)



⑤ (실적 달성 부담 요인) 올해 실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에 대해, '제품(서비스) 수요 부진' 으로 응답한 기업이 61.9%로 가장 많았음. 그 다음은 '원자재 가격 상승' (53.2%), '누적된 인건비 상승' (44.6%), '높은 금리로 인한 금융비용 상승' (24.1%) 등

※ 복수응답으로 인해 각 항목 비중의 합이 100을 초과

- '제품(서비스) 수요 부진' 응답은 300인 미만 기업(62.5%)이 300인 이상 기업(56.9%)보다 5.6%p 높게 나타남. '원자재 가격 상승' 과 '높은 금리로 인한 금융비용 상승' 응답 역시 300인 미만 기업이 300인 이상 기업보다 많았음. '누적된 인건비 상승' 응답은 300인 이상 기업(55.4%)이 300인 미만 기업(43.3%)보다 12.1%p 높게 나타나 규모별로 차이를 보임.

#### ◆ 한국은행, 「2024년 4/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속보)」 발표 (1.23)

○ 2024년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대비 2.0% 증가 2024년 연간 경제성장률은 한국은행의 2024년 11월 전망치(2.2%) 대비 0.2%p 낮은 수준

※ 최근 5년('20~'24)간 연간 경제성장률 추이(% , '20~'22 확정치, '23 잠정치, '24 속보치):  
0.7%('20)→ 4.6%('21)→ 2.7%('22)→ 1.4%('23)→ 2.0%('24)

- 지출항목별로 민간소비 증가 폭이 축소되고 건설투자는 감소 전환하였으나, 정부소비, 설비투자, 수출은 증가 폭이 확대

※ 연간 지출항목별 성장률 추이('23 잠정치, '24 속보치):

[민간소비] 1.8%('23)→ 1.1%('24) [정부소비] 1.3%('23)→ 1.7%('24)

[건설투자] 1.5%('23)→ 2.7%('24) [설비투자] 1.1%('23)→ 1.8%('24)

[수출] 3.6%('23)→ 6.9%('24) [수입] 3.5%('23)→ 2.4%('24)

- 지출주체별 성장기여도는 민간 1.6%p, 정부 0.4%p로 나타남.

○ 2024년 4/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대비 0.1% 증가(전년동기대비 1.2% 증가) 2024년 4/4분기 전기대비 경제성장률은 한국은행의 2024년 11월 전망치(0.5%) 대비 0.4%p 낮은 수준

※ 최근 분기별 경제성장률 추이(한국은행): 0.5%('23.4q)→ 1.3%('24.1q)→ 0.2(2q)→ 0.1(3q)→ 0.1(4q)

- 지출항목별로 민간소비(0.2%), 정부소비(0.5%), 설비투자(1.6%)와 수출(0.3%)이 모두 전기 대비 증가했으나, 건설투자(3.2%)는 전기대비 감소

### ◆ 기획재정부, 「국제통화기금(IMF) 1월 세계경제전망 발표」 보도 (1.17)

- IMF는 2025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3.3%로 전망했으며, 2026년은 3.3%로 전망
  - ※ '25년 경제성장률은 '24.10월 전망(3.2%) 대비 0.1% 상향 조정됐고, '26년 경제성장률은 '24.10월 전망(3.3%)과 동일
- 국가별로 보면 미국(2.7%)은 자산 효과에 따른 소비 강세, 완화된 통화정책 및 안정적 금융 여건에 힘입어 성장률이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됨. 반면, 지정학적 긴장 지속, 제조업 분야 약세 등으로 독일(0.3%), 프랑스(0.8%), 이탈리아(0.7%) 등 유로존에 대해서는 성장률 둔화를 전망
  - ※ 주요국 2025년 경제성장률 전망('24.10월 전망 대비):  
 [미국] 2.7(0.5%), [중국] 4.6(0.1%), [독일] 0.3(0.5%),  
 [프랑스] 0.8(0.3%), [영국] 1.6(0.1%), [일본] 1.1(-) 등
- IMF는 한국 경제성장률을 2025년 2.0%, 2026년 2.1%로 전망
  - ※ '24.10월 IMF 전망치(2.2%) 대비 2025년 성장률은 0.2%p 하향 조정, 2026년 성장률은 0.1%p 하향 조정
- IMF는 세계 경제 위험요인이 하방으로 기울어져 있다면서, 美 신정부의 보호무역주의 확대, 확장적 재정정책, 이민 정책 등을 위험요인으로 제시. 특히, 확장적 재정정책, 규제 완화 정책이 단기적으로 美 경제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가져올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채권금리 상승, 신흥국 자본 이탈을 초래하여 세계 경제에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힘.
- 또한, 미국 신정부의 보호무역주의 확대, 이민 제한 정책이 무역 갈등 심화, 노동력 공급 차질을 야기함으로써 미국과 세계경제 모두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우려
- 세계 경제 상방요인으로 무역협정 추가 체결 등 자유무역 기조 확대와 함께 노동력 확충, 경쟁촉진, 혁신 지원 등을 위한 구조개혁 추진을 제시
- IMF는 지속가능한 부채 관리를 위한 재정 건전화 노력과 함께 성장 친화적 재정 투자 및 취약계층 보호를 강조. 또한, 자본이동 변동성 확대에 대비하여 일시적인 외환시장 개입, 적절한 거시건전성 조치 도입과 급격한 위기 발생 시 자본흐름 제한 조치 활용 등을 제안

### ◆ 한국은행, 「2025년 1월 기업경기조사 결과」 발표 (1.23)

- (기업심리지수) 2025년 1월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85.9로 전월대비 1.4p 하락

- 하였으며, 2025년 2월 전망 CBSI는 85.4로 전월대비 2.5p 상승 전산업 CBSI 추이 : 91.6('24.9)→92.5(10)→91.8(11)→87.3(12)→85.9('25.1)
- **(제조업)** 2025년 1월 CBSI는 89.0 \* 으로 전월에 비해 1.9p 상승하였으며, 2025년 2월 전망 CBSI는 89.1로 전월에 비해 3.6p 상승 제조업 CBSI 추이 : 91.2('24.9)→93.0(10)→90.9(11)→87.1(12)→89.0('25.1)
  - **(비제조업)** 2025년 1월 CBSI는 83.6 \* 으로 전월에 비해 3.9p 하락하였으며, 2025년 2월 전망 CBSI는 82.6으로 전월에 비해 1.7p 상승 비제조업 CBSI 추이 : 91.8('24.9)→92.1(10)→92.5(11)→87.5(12)→83.6('25.1)
  - **(기업경기실사지수)** 2025년 1월 업황BSI는 64 \* 로 전월과 동일하였으며, 2025년 2월 업황전망 BSI는 64로 전월대비 2p 상승 업황BSI 추이 : 70('24.9)→69(10)→69(11)→64(12)→64('25.1)
  - **(제조업)** 2025년 1월 업황BSI는 63 \* 으로 전월에 비해 1p 상승하였으며, 2025년 2월 업황전망BSI는 65로 전월에 비해 4p 상승 제조업 업황BSI 추이 : 69('24.9)→69(10)→68(11)→62(12)→63('25.1)
  - **(비제조업)** 2025년 1월 업황BSI는 64로 전월에 비해 1p 하락하였으나, 2025년 2월 업황 전망BSI는 63으로 전월에 비해 1p 상승 비제조업 업황BSI 추이 : 70('24.9)→70(10)→69(11)→65(12)→64('25.1)

### ◆ 한국은행, 「2024년 12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 발표 (1.21)

- 2024년 12월 생산자물가지수는 공산품(0.3%) 및 농림수산물(2.8%) 등이 올라 전월대비 0.3% 상승(전년동월대비 1.7% 상승)
  - ※ 생산자물가지수 상승률 추이(전월비) : 0.2('24.8)→0.2(9)→0.1(10)→0.1(11)→0.3(12)
  - ※ 생산자물가지수 상승률 추이(전년동월비) : 1.6('24.8)→1.0(9)→1.0(10)→1.4(11)→1.7(12)
- **(농림수산물)** 농산물(3.4%) 및 축산물(3.7%)이 올라 전월대비 2.8% 상승(전년동월대비 2.0% 감소)
- **(공산품)** 석탄 및 석유제품(2.2%) 및 화학제품(0.4%) 등이 올라 전월대비 0.3% 상승(전년동월대비 1.2% 상승)
- **(전력, 가스, 수도 및 폐기물)** 산업용도시가스(4.9%) 등이 올라 전월대비 0.4% 상승(전년동월대비 5.3% 상승)
- **(서비스)**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0.3%), 운송서비스(0.3%) 등이 올라 전월대비 0.1% 상승(전년동월대비 2.0% 상승)
- 2024년 연간 생산자물가지수는 농림수산물(4.5%),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3.2%),



<http://www.gjef.or.kr>

금요조찬포럼 / Ⅲ. 노동경제동향

- 서비스(2.2%), 공산품(0.9%)이 모두 올라 전년대비 1.7% 상승
- 2024년 12월 국내공급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6% 상승(전년동월대비 2.6% 상승), 2024년 12월 총산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8% 상승(전년동월대비 3.7% 상승) 국내에 공급(국내출하 및 수입)되는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측정한 지수 국내생산품의 전반적인 가격변동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출하 외에 수출을 포함하는 총산출 기준으로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측정한 지수
  - 2024년 연간 국내공급물가지수는 전년대비 1.9% 상승, 2024년 총산출물가지수는 전년대비 2.7% 상승

## 2. 노사 동향

### ◆ 고령자 계속고용을 둘러싼 노사정 논의 난향 전망

- 정년연장(계속고용) 논의가 정부와 정치권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사노위는 올해 1분기 내 계속고용과 관련한 노사합의 도출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 이에 경사노위는 1. 23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전문가 및 노사입장을 청취했으나 노사간 현격한 입장차이 노정
  - 경영계는 ① 법적 정년연장은 일자리 감소와 이중구조를 심화시키고, ② 높은 임금연공성과 고용경직성을 감안하면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조차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
  - 또한, 경영계는 계속고용 논의 앞서 직무·성과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고령자 고용의 방식도 퇴직후 재고용 중심으로 고령자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 표명
  - 반면, 노동계는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맞춰 법정 정년을 일괄적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정부가 정년연장에 따른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주도해서는 안된다는 입장 표명
- ※ 한국노총은 지난해 비상계엄 이후 경사노위 산하 위원회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으나, 토론회에는 참여
-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1. 22 「제1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법정 정년연장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으나, 정치권에서는 정년연장에 대해 ①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단계적 적용, ② 일괄 법정 정년연장 등의 입장이 나타나고 있어 향후 정년연장을 둘러싼 갈등증가 전망

### ◆ 민주노총은 2025년 사업계획 및 투쟁일정 논의

- 민주노총은 1. 16 「중앙집행위원회」에서 2025년 주요 사업계획 및 투쟁일정 논의
  - ※ 민주노총은 2. 11 「정기대의원대회」에서 2025년 사업계획 확정 예정
  - 민주노총은 2025년 주요 사업목표로 ① 정권 퇴진, ② 노동기본권 쟁취 등으로 결정
  - 민주노총은 조기대선을 전제로 2025년 투쟁일정을 수립한 가운데 ① (1~3월)대통령 퇴진투쟁 집중, ② (3~5월) 조기 대선 대응 정치활동, ③ (5~8월) 새정부 출범 노정교섭 성사추진, ④ (9~12월) 정기국회 입법투쟁을 전개한다는 계획

<http://www.gjef.or.kr>

금요조찬포럼 / Ⅲ. 노동경제동향

- 민주노총은 조기 대선을 전제로 사업계획을 마련한 만큼 2025년 전국단위 총파업 추진은 추후 결정 전망
  - 민주노총은 정치상황 변화, 강성 세력의 총파업 압박 등으로 7월 총파업 추진 가능성 상존
    - ※ 금속, 공공 등 조직은 지난해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전국단위 총파업 추진을 강하게 주장
- 한편, 민주노총 사업계획 확정을 위한 「정기대의원대회」가 2. 11 예정된 가운데 금번 대의원대회에서는 국회 내 사회적 대화를 둘러싼 갈등 심화 전망
  - 양경수 집행부는 국회 내 사회적 대화 참여를 대의원대회를 통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나, 금속, 공공 등 사회적 대화 반대 조직은 강한 반대 입장 표명 전망